



보도시점 2026. 8. 24.(월) 11:00
2026. 8. 25.(화) 조간

배포 2026. 8. 24.(월) 06:00

우리 집 밥상에 오르기 전, 잔류농약·중금속·식중독균 깎간하게 가려낸다

- 전국 51개 농산물 분석기관 대상 ‘국제표준(ISO)’에 따라 엄격 평가
- 밥상 위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차단 총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국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전국 51개 안전성 검사·검정기관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분석 능력 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중에 유통 중이거나 출하를 앞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기관의 ‘분석 정확도’를 국제표준(ISO)에 따라 검증하는 것이다. 이들 기관의 분석 결과는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 연기나 폐기 등 직접적인 안전조치의 근거가 되는 만큼, 농관원은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 밥상 위 위협 요소 4개 분야 집중 검증

올해 평가 대상은 농관원이 지정·관리하는 51개 전문 분석기관이다. 8월 25일 평가용 시료 배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평가를 진행하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 농산물 분야: 잔류농약(48개 실험실), 중금속(33개), 병원성 미생물(7개)
- 토양 분야: 토양 중 중금속(26개)

2. 국제표준(ISO)에 따라 분석 정확도 평가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2015년부터 국제표준(ISO)에 따른 ‘숙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각 기관이 제출한 분석 결과의 표준점수(z-score)가 통계적 허용범위($|z| \leq 2$) 이내일 경우 ‘양호’로 평가한다.

3. 단순 평가를 넘어 ‘분석 능력 향상’까지 밀착 관리

농관원은 평가 결과 통보에 그치지 않고, 분석값이 허용범위를 벗어난 기관에 대해서는 기술적 원인을 규명해 개선을 지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오는 10월에는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해 전국 분석기관의 분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수아 농관원 시험연구소장은 “분석기관에 대한 엄격한 정도관리는 국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국제적 수준의 검증 체계를 유지해 우리나라 농산물 안전성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안전성검사 장비

2. 안전성검사·검정기관 정도관리 개요

담당 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책임자	소 장	최수아 (054-429-7702)
		담당자	사무관	조현정 (054-429-7760)



APGC(대기압가스크로마토그래프, 농약 검사)



APGC(대기압가스크로마토그래프, 농약 검사)



ICP-MS(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중금속 검사)

□ 목적

- 안전성검사·검정기관의 유해물질 분석능력을 평가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분석능력 향상 도모

□ 안전성검사기관 · 검정기관

구분	안전성검사기관	안전성검정기관
지정근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역할	생산·유통 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의 시료 분석 수행	신청(의뢰)에 따른 농산물 품위·성분·유해물질 검정
결과 활용	부적합 농산물 출하연기·폐기 등 안전관리 조치의 근거	검정증명서 발급 등

- (지정) 두 기관 모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
- (평가근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5조,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8조

□ 추진방식

- 국제기준(ISO/IEC 17043)에 따른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운영(2015년~)
 - * ISO/IEC 17043: 분석기관에 대한 실력 평가(숙련도시험)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평가용 시료의 균질성 확인, 기준값 설정, 통계 처리 방법(ISO 13528) 등 평가 전 과정의 요건을 정한 국제표준
- $|z| \leq 2$ "양호", $|z| > 2$ "미흡"
 - *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개선 지원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연계

□ 평가 개요

- 대상: 안전성검사·검정기관 51개 기관
- 분야: 농산물 중 잔류농약,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 토양 중 중금속
- 일정: 시료 배포(8. 25.) → 결과 제출 평가(~10월), 정도관리 역량 강화 교육(10월)

□ 2026년 정도관리 분야별 대상기관 현황

구분	농산물			토양	계
	잔류농약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중금속	
참여 실험실 수	48	33	7	26	51개 기관